

태광산업, LG화학과 손잡고 합성수지 원료 합작공장 설립

창사 이래 첫 합작법인 추진
아크릴로니트릴 증설 위한 투자
연 26만톤 규모 생산 능력

태광그룹 섬유·석유화학 계열사인 태광산업이 LG화학과 손잡고 아크릴로니트릴(AN) 증설을 위한 대규모 합작투자에 나선다.

태광산업은 2일 오전 서울 장충동 본사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합작법인 가칭 '티엘케이칼 주식회사' 설립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정찬식 태광산업 석유화학부문 대표와 노국래 LG화학 석유화학사업본부장이 AN 증설 관련 합작투자 계약서에 공식 서명했다.

태광산업이 합작법인 설립에 나선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태광산업은 최초 설립 시 전체 주식 370만주의 60%에 해당하는 222만주를 728억원에, LG화학은 나머지 148만주를 485억원에 인수할 예정이다. 양사는 추후 유상증자 등을 통해 추가 출자할 예정이다.



태광산업 석유화학 3공장.

태광산업은 현재 울산광역시 남구 부곡동에 위치한 석유화학 3공장에서 연 29만톤의 AN을 생산하고 있다. 울산 1·2공장 인근에 마련될 합작공장은 계약 체결과 기본·상세 설계, 시운전 등을 거쳐 2024년에 첫 상업생산에 나설 계획이다. 합작공장의 생산능력은 연 26만톤 규모다.

양사가 보유하게 될 지분은 태광산업이 60%, LG화학은 40%로 확정됐다. 정식 법인 명칭과 설립일은 하반기 중

최종 확정된다. 신설법인에서 생산되는 AN은 태광산업과 LG화학에 공급된다.

양사는 "합작을 통해 대규모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분담하면서 핵심 사업의 경쟁력 제고, 시장지배력 확대를 꾀할 수 있다"라며 "안정적 수요처 확보를 통한 증설로 규모의 경제 실현, 핵심사업 육성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이번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양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기대감과 AN을 사용하는 가전·자동차·친환경 위생 분야의 석유화학 제품 수요 증가에 따른 매출 및 이익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태광산업은 AN 증설 효과는 물론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가 가능해졌다. 한국석유화학협회의 '2020년 석유화학편람'에 따르면 태광산업 AN 부문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2019년말 기준 33.3%다.

LG화학 역시 고부가합성수지(ABS), 니트릴부타디엔라텍스(NBL) 등 핵심 육성 사업에 필요한 원료인 AN의 국내 확보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한편 태광산업은 1950년 창업 이래 내실경영을 바탕으로 품질 및 설비 우위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했고, 1990년대 후반 석유화학 1~3공장 완공 이후 종합섬유메이커로서 수직계열화에 성공해 업계 선도 기업으로 올라섰다. 석유화학 부문의 경우 울산공장 3곳에서 AN, 고순도테레프탈산(PTA), 프로필렌 등을 생산하며 지난해 기준 전체 매출액의 74.2%를 차지하는 주력 사업군이다.

LG화학은 국내의 연간 200만톤 이상의 ABS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친환경 라텍스 장갑에 사용되는 NBL의 경우 2025년까지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등 주요 3개 국가의 생산능력을 100만톤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롯데푸드 식물성 대체육류 제품 4종

버거에 라면까지... 비건 제품 전성시대

롯데푸드, 식물성 대체육 대량 생산
풀무원, 비건 제품 개발 로드맵 마련

최근 식품업계의 비건(vegan·채식주의) 제품 개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자들의 건강에 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데다, 미닝아웃(meaning out·가치관에 따라 브랜드를 선택하는 방식) 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 소비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콩 등으로 만든 대체육, 식물성 재료만 사용한 라면과 음료수, 주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등장했다.

롯데푸드는 한국 식품업계 최초로 대량생산한 식물성 대체육을 선보였다. 롯데푸드 '제로미트'는 '식물 유래 단백질과 원료로 만들어 자연에서 온 건강함을 쉽고 맛있게 전달하는 베지테리언 푸드'를 콘셉트로 하는 브랜드다.

2019년 4월 김천공장에서 밀 단백질질을 기반으로 만든 '제로미트 너겟'과 '제로미트 까스'를 생산하면서 처음 브랜드를 선보였다. 통밀에서 압출한 식물성 단백질로 고기의 근 섬유를 재현하고 닭고기 특유의 쫄깃한 식감을 구현한 제로미트 너겟과 까스는 출시후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6만개를 넘겼다.

풀무원은 전담 부서를 꾸려 비건 제

품 개발 로드맵을 마련했다. 식물성 단백질 제품을 전담하는 PPM(Plant Protein Meal)사업부를 중심으로 오는 2023년까지 다양한 식물성 지하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두부면, 비건 라면 '정면', 식물성 액티비아 등을 선보인 풀무원은 올해 국내 시장에서 비건 제품을 20여종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CJ제일제당에선 충북 진천군 식품 통합생산기지를 중심으로 한 대체육 연구개발(R&D)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최근에는 세계 최초로 기능성 아미노산인 '시스테인(L-Cysteine)'을 비(非)전기분해 방식으로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확보,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 시스테인은 고기 향을 내는 소재인 만큼 급성장하는 비건 및 대체육 시장에서 활용도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유명 비건 상품의 수입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동원F&B는 미국 대체육 생산업체 비온드미트의 제품에 대한 독점 공급계약을 맺고 지난해부터 '비온드버거' '비온드치킨스트립' 등 대체육으로 만든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비온드미트'는 2009년 설립된 미국의 스타트업으로, 콩과 버섯, 호박 등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100% 식물성 대체육을 만든다.

SPC삼립도 지난해부터 미국 잇저스트의 '식물성 대체달걀'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코로나가 바꾼 산업계 업무방식

순환 재택근무·거점 오피스·유연출퇴근제

현대차, 400석 규모 거점오피스 운영
SK그룹, 화상면접으로 비대면 채용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의 장기화로 국내 기업들이 기존의 틀을 깬 새로운 업무 방식을 도입하는 등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순환·재택근무는 물론 출근 장소를 사무실이 아닌 집 주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 특성에 맞는 차별화 된 방식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1일 서울 등 수도권 총 7곳에 약 400석 규모의 거점 오피스 '에이치-워크 스테이션'을 열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판교에 3분기에 약 100석 규모의 거점 오피스가 추가되면 8곳에 약 500석 규모의 거점 오피스가 운영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자 중 가장 내 근무여건이 좋지 않은 직원들, 장거리 출퇴근자, 외부 출장 직원 등이 거점 오피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각 거점은 실시간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온라인 타운홀 미팅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관련 질문에 대해 "위성 오피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출근해서 일을 하는 솔루션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삼성과 LG그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순환 재택근무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마케팅 분야 등의 직군에 대해 순환 재택근무를 운영하고 있다. LG그룹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을 위해 재택근무와 유연출퇴



재택근무 이미지.

근무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LG그룹은 인사부 직원은 필요한 만큼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 유치원·어린이집의 휴원, 초등학교 개학 연기 등으로 육아를 위해 재택근무가 필요한 직원들도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 다만 삼성전자와 LG그룹은 제품 생산 중심의 전통 제조업체라는 점에서 생산라인 등은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하는 방식에서부터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SK그룹은 코로나19 이후 상시 유연근무제 실시, 화상면접을 통한 비대면 채용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최태원은 2020년 3월 화상회의로 진행된 SK수펙스추진협의회 회의에서 "각 관계사가 위기 돌파를 위한 생존조건을 확보하고 근무형태 변화의 경험을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위한 계기로 삼아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화그룹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계열사별 사업 특성에 맞게 기존 업무 방식의 틀을 깨고 디지털 전환과 신사업을 본격 추진 하는 등 혁신을 이뤄나가고 있다.

한화시스템 ICT 부문은 '포스트 코

로나' 시대를 대비해 일하는 환경과 방식을 비대면과 디지털 기반으로 혁신하는 고도화된 스마트워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근무유연성 확보를 위한 원격근무제를 포함한다. 임직원들의 주소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 업무 지역과 선호지역에 대한 설문을 병행해 수도권 일대 5곳에서 거점 오피스를 운영한다. 직원들은 재택근무와 거점 오피스 근무를 더한 원격 근무를 주 3회 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한화호텔은 비대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인 '스마트클래스 원격지원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은 지난해 모든 업무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했다.

한화큐셀은 기존 2교대 재택근무를 지속하고, 출근 인력에 대해서는 여유 좌석을 활용한 간격 두기와 마주보는 좌석의 경우 비말 차단을 위한 파티션을 신규 설치했다.

이 외에도 금융계열사인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도 재택근무를 도입해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